활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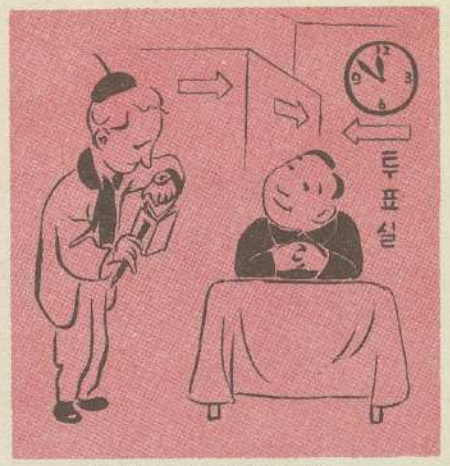
11월호

1956년(72)

3 - AUG - 9
Copy ____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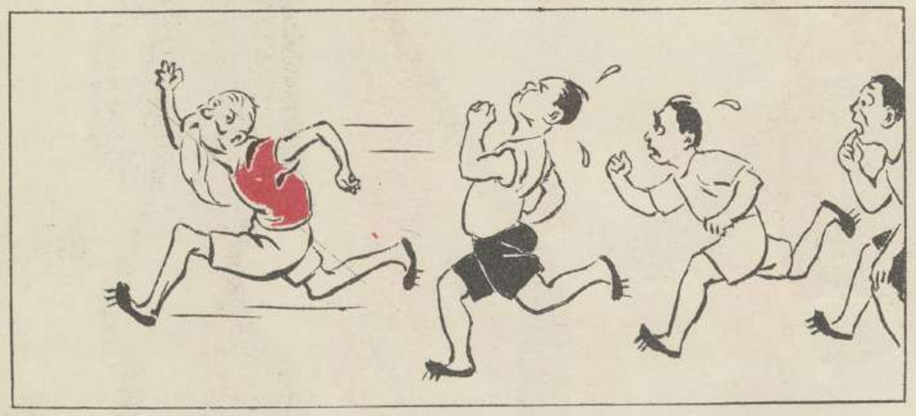
선거 풍경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지방 주권 기관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였다。



——12시가 다 되였는데
유권자들이 왜 아직 나오지 않는가요?

——11시까지 모두 투표를 끝내고 돌아 갔습니다



오늘은 년령이 상관이 아니다!

—— 관람자들에게 톡톡이 혼난걸
—— 우리들의 연기가 성공한 셈이지

송용남 그림

진정한 대표 추려내며

—오늘 우리는 보다 훌륭한 강철을 뽑아낸 셈이지…

황종호 그림

——글세 이게 뭔말야? 갖은 재간을 다 피우구두 겨우 52% 찬성 투표 밖에 걷어 들이지 못했으니! 2 %만 모자라서도 락선됐을거 안야, 총이 없었나, 칼이 없었나, 이게 무슨 꼴이야? 게다가 경상도나 서울같은 데서는 내가 죽은 신 익히한테 떨어지다니? 내가 이렇게 송장한테까지 지게된 건 누구 때문이냐 말야!

내무부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자유당 출신 장관들이 모인 정무대 비밀 회의에서 리 승만은 지난번 선거의 실패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것은 첫째 장관들의 역할이 미약한 탓이요, 둘째로는 내 손발처럼 놀아야 될 공무원 놈들이 반심을 먹은 때문이란 말야!

그는 입을 씰룩거리면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옳습니다。 대통령각하!

내무부 장관 리 익흥은 두손을 읍하고 서서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더군다나 우리의 지팽이가 돼야 할 경찰놈들까지도 겉으로는 복종하는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꿈을 꾸는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놈들이 부지기수니 이걸 수술하는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되옵니다。

——옳지 옳지 사람 몸뚱이에 피가 제대로 순환해야 잘 뛰고 잘 놀게 아닌가? 헌데 나를 반대하는 놈들이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으니 명령 지시가 집행될게 뭔가? 그러니까 이번 공무원을 감원시킨다구 해놓고 그런 반대 사상을 가진 놈들은 깡그리 쫓아내잔 말이야! 알겠어?

——네 천만 지당한 말씀이 올시다。

그리하여 괴뢰 정부의 각급 기관을 자유당 계렬 분자로 강화하려는 의도 밑에 공무원의 대량 감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안이 채택되였다。

1, 민주당원이나 기타 야당원은 공무원 자리에서 무조건 축출할 것。
2,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야당원의 친척되는 자까지도 면직시킬 것。
3, 야당원과의 친교가 있는 자도 다른 온전 분자와 교체시킬 것。

이 비밀 지시는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면으로 쭈루루 일사천리로 하달 되였다。

그리하여 갖은 구실과 별별 관계로서 야당계, 무소

곱새춤에 면직 잠꼬대에 출직

신 홍순

속, 공무원들을 덮어 놓고 면직 시키고 있는 것이다。

◇

군수는 직접 각 면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방에 불러들여 가지고 면 서기들을 정리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김 면장!

——예

——에— 그면의 리서기로 말하면 민주당원이라지?

——예

——음 그리구 박 서기는 진보당원이라면서?

——아직 안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좋아! 이 문서장에 다 밝혀 있으니까… 그리구 한 서기는 처가집이 민주당이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이 면 직원의 가정 상태두 잘 모르구 일이 되나? 그럼 강 서기가 민주당 면당 간판을 써 준건 아오?

——네? 그건 금시 초문인데요, 그사람이 워낙 붓글씨를 잘 쓰긴 허지만……

——그리구 또 오서기는 안골 박 서방네 환갑 잔치에 닭 한마리까지 부조를 했다는데?

——박 서방넵쇼?

——그래 민주당 도당 위원 말이야

——것두 잘 모르겠는뎁쇼。

——김 면장은 그저 모르쇠로구먼! 그리구 황서기는 상장단을 치구 장서기는 곱새춤을 췄다면서?

——글쎄 올시다.전연 첨 듣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정부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 망태길 쳤단 말야 이번 통에 이놈들을 다 갈아 치워야겠어!

——아니 다 내 쫓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요?

——헐 사람이 얼마던지 있어! 날구 뛰는 놈두 직업이 없어 허덕허덕 히는 판에 히!

——그래두 리 서기나 박 서기는 벌써 10년 동안이나 경험이 있어 인젠 면 사무소엔 박사가 됐굽쇼, 그리구 한 서기나 황 서기로 말하면 면 사무소 귀신이란 별호까지 듣고 있는 아조 충실한 일'군이 올시다。 그리구 강 서기는 글씨가 명필이요 장 서기는 신망이 두터운 일'군이 올시다。 군수님!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아! 여러말 할것 없어!

——허지만 내쫓는 리유만 허드래두 환갑집에 가서 곱새춤 춘것이 뭐 잘못입니까?

——허어 저러니 면 일이 될게 뭐람! 곱새춤이 죄란 말야! 곱새춤이! 그리구 김 면장두 그 자릴 내놔야겠소!

——뭐라구요? 아니 나는 민주당에두 관계 없구 진보당에두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죄루 나를 내쫓겠단 말이요?

——김 면장! 당신은 저번 선거에 잠꼬대를 했다지?

——잠꼬대요?

——그래

——내가 무슨 잠꼬대를 해요?

——『이리(리 승만)조리(조 봉암) 가지 말고 신장(신 익히, 장 면)로루만 가라』구 잠결에 웨친건 누구야?

——예?

——리 승만 조 봉암이는 반댈허구 신익히와 장 면이에게만 찬성허라는 민주당 구호는 왜 웨쳤느냐 말야?

——여보! 내쫓으려면 거냥 내 쫓을게지 곱새춤이나 잠꼬대가 무슨 죄란 말요? 흐! 그렇게 독판을 치다간 개판 밖에 칠게 없을걸!

이리하여 이번 감원된 3만 5천여명의 공무원이 남조선 2백만 실업 군중 대렬에 가첨되여 더 한층 실업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백인균 그림

끝 없는 배려

인민 생활 향상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한 임금 인상과 물가 인하로 근로자들은 년간 120억원의 리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당신들의 로력적 성과는 이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대식가

—이것 가지군 모자라니 그것 마저 가져와!

염라대왕의 항의

염라대왕—이놈아! 네 돈 벌이에 내가 잠 못 자겠구나!

"지팽이와 몽둥이"

신 흥순

여기는 전라남도 어느 경찰서 호안과장실

과장 무슨일루 왔어?
시민 네 한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과장 뭔데?
시민 오늘 저녁에 강연회를 개최하려구 허는뎁쇼.
과장 강연회?
시민 네 그래 사전에 경찰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구 해서……
과장 음 집회 허가! 어디 주최데?
시민 저어 당에서……
과장 당의 주최야? 응 거야 집회의 자윤데…… 우리 경찰은 절대 주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니까…… 언론이구 출판이구 결사, 집회—맘대루 헐수 있단 말요.
시민 네
과장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원을 제출 허시지, 집회의 목적, 집회 시간 그리구 장소, 집회 인원수, 만약 강연이라면 강사의 이름두 밝히구 강연 제목까지… 알겠소?
시민 네 그래서 허가원을 써 가지고 왔습니다. 양식대루 이렇게……
과장 어디 봅시다. (받아 들고 보다가) 음 자유당에서 주최허는게 아니로구먼!
시민 네 민주당에서……
과장 가맞자 장소가 어디라?
시민 거기 썼습죠 례식부에서 허기루……
과장 례식부? 아 거기야 결혼식 허는데지
시민 뭐 저녁에 뭐서너시간 빌리기루 헌걸요.
과장 잉 결혼식두 아닌데 례식부야 안되지 그건 허가허기 곤난헌데!
시민 결혼식이 아니니까 거긴 안된다… 그럼 과장님! 례배당에서 허겠습니다.
과장 례배당?
시민 네 그건 내가 나서면 빌릴 수 있으니까요.
과장 아니 이건 종교두 아닌데 어떻게 례배당에서?
시민 아니 저번에 납세 강연회는 거기서 허잖았습니까?
과장 음 그건 특수사정이지 그리구 참 그때 신자들을 중심해서 개최했던거야!
시민 그럼 학교에서 허조?
과장 학교? 이게 무슨 교육 사업이라구 학교에서 해? 흐! 그건 더 안될 말이지!
시민 그럼 여기두 안되구 저기두 안된다면 어디서 허란 말입니까? 차라리 그만 둬라 허는게 옳지.
과장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허질말랬어? 적당한 장소를 택해 오란 말이야! 적당한 장소!
시민 그럼 례식부니 례배당이니 학교니 그런 지상 건물은 다 집어치우구 운동장에서 헐테니 그래두 안되겠소?
과장 운동장? 아니 체육 경기두 아닌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해?
시민 그럼 우시장?
과장 우시장이야 소나 들어가는데질!
시민 아니 그럼 애당초 『허가 헐수 없다』구 말 헐게지 『집회 결사는 자유다!』허면서 그런 말이 어딨소 원
과장 안될 장소만 선택허니 그렇지?
시민 그럼 좋소! 집두 아니구 마당두 아닌 저 개울'가 공지에서 허겠소.
과장 뭐? 강가에서? 거긴 전부 하천 부지가 아닌가?
시민 하천 부지야 말 헐놈 없겠지
과장 음 그 하천 부지는 벌써 삼년전부터 자유당에서 측량해 둔게야! 그러니까 그건 자유당에게서 빌린 담에 허가원을 내란 말야!
시민 여보 과장나리! 어디 속 시언히 좀 알아나 봅시다. 자유당에선 즈맘대루 척척 강연회요 시위요 막허게 보장해 주면서 왜 우리네 한텐 집회 허가까지두 안 내주려드는 리윤 뭐요?
과장 누가 허가를 안해 주겠댔어? 우리 경찰 임무 집행상 저촉되지 않는 장소만 택해 오라는데.
시민 여기두 저기두 다 안된다니 그럼 이 남조선 땅에 어디가 적당한 장소란 말요?
과장 괘두 씨끄럽게 구네 나한테 물어볼게 뭐야!
시민 그럼 강바닥 어름'장 우에서 허겠소! 어켈래요?
과장 거긴 강이니까 수상 경찰서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와!

과장은 허가원을 내 던진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나오면서 이렇게 웅얼댔다.

『그러니까 남조선의 자유란 전 자유당만이 자유로 하는 자유가 있고 우리네 자유는 결국 못허는 자유로구먼!』

이와같이 남조선 경찰이란 여당(자유당)에게는 지팽이로 되고 야당들에게는 몽둥이 노릇을 하고 있다.

돈 벌이 기구들

백인균 그림

리 승만—뭐니 뭐니해야 이게 제일 실속 있는 돈 벌이야!

—이건 이렇게 쓰는 올개미란 말이야

—돈 벌이에는 이놈이면 거저 그만이야

—사실은 나를 보고 은행가라고 비유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야

—이래 봐두 이놈이 은 가루 값이란 말이야

세계의 웃음꺼리

미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난 모르겠는데? 박승히 그림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미제는 리 승만 도배를 조선 인민의 대표인듯이 떠버리고 있으나 미제의 추종 국가 인민들까지도 리 승만 도배들이 멸망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 흥순

괴뢰『국군』내에는 탈주병이 하도 많으니까 요사이 소위『전우조』라고 해서 세 사람씩 짝을 지어 다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다닐 때는 물론이고 밥 먹으려 갈 때나 물 마시려 갈 때나 셋이 꼭 붙어 다니게 마련이고 심지어 한 사람이 변소엘 가게 되면 의례 셋이 같이 가야만 되는데 그것도 보통 거름씨가 아니라『3인조 3보 급보』라 해서 늘상 뛰여 다녀야 한다.

그런데 최근『국군』어느 련대에서 표창식이 있었는데 련대장이 연단에 떠억 올라서서 다음과 같은 표창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에— 국군 륙군 제3군단 제7사단 제5련대 제6대대 제8중대 제2소대 제1분대 병사 리 백골 군은 다음과 같이 타에 모범이 되였음을 인정한다。

첫째 다른 병사들은 밥이 너무 적어서 배가 고프다고 투정하고 상관이 떼 먹었다고 불평인데 리군으로 말하면 허리띠를 졸라 매구서 말 없이 잘 견디여 내니 굶는데 용감하고,

둘째 추운 겨울 덮개 없이도 새우잠을 잘 자니 나무토막 처럼 억세고,

셋째 다른 병사들은 군대내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팔아 먹는데 리군은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넷째 다른 병사들은 훈련이 힘들다고 피병을 헌다 제다리를 총으로 쏜다 해서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리군은 오히려 밥에 잠꼬대까지도 "돌격 앞으로!"를 부르짖는다니 이것이야 말로 사기충천의 표현이란 말야! 그러므로 본관은 이를 표창하는 바이다』

그는 상장을 들고

『자 그럼 리 백골 앞으로 나와!』하고 불렀다。 그런데 아모 대답이 없다。

『리 백골! 아니 리 백골 없나?!』

련대장은 찢어지는 소리로 소속 분대장을 쏘아 보았다。

분대장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리 백골은 오늘 새벽에 도망쳤습니다!』

『3인조는』

『3인조 3보 급보로 몽땅 도망 쳤습니다!』

허장 성세를 잘 부리는 까마귀가 딱다구리를 만났다。

까 마 귀 에그 세상에 너처럼 불상한 짐승은 없구나! 만날 따딱따딱 입부리가 아프도록 나무를 쪼아야 겨우 벌레 새끼나 주어 먹으니。

딱다구리 재주가 그뿐인걸 헐수 있니?

까 마 귀 아 그 주둥일 가지구서 왜 노루나 토끼를 못잡아 먹는단 말이냐? 난 요즘 호랑이 고기 먹기에 배가 터질 지경이다。

딱다구리 어데 죽은 호랑이가 있든?

까 마 귀 죽은전 왜? 산 호랑일 잡아 먹지。

딱다구리 네가 그 큰 호랑일 잡아?

까 마 귀 아 그럼뭐 내가 호랑일 만나면 말야 휘익! 허구 후려 내려가서 대뜸 두 눈깔을 빼먹는단다。 그러면 호랑이가 죽겠다구 깨갱깨갱 허구 날치지 않겠니。

딱다구리 무슨 강아지냐? 깨갱깨갱허게?

까 마 귀 아니 참 냐옹냐옹 허든가?

딱다구리 고양이가 냐옹냐옹 허지 호랑인 으헝! 헌단다。

까 마 귀 참 그래 그래 으헝! 그담엔 말야 또 후려쳐 내려가서 호랑이 꽁질 물구는 공중으로 올라 간단다。 그러면 꺼꾸로 매달린 호랑이가 어떻게 되겠니?

딱다구리 얘 거짓말 작작해라 호랑이가 뭐 개구리만 헌줄 아니?

까 마 귀 아냐 정말이야 래일 잡는거 한번 볼테냐?

딱다구리 그럼 호랑인 그만두고 오늘 노루나 한마리 잡아보렴。

까 마 귀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노루를 만날 수 있니?

딱다구리 그럼 여우。

까 마 귀 여우두 그렇지。

딱다구리 그럼 토끼。

까 마 귀 토끼두 못만나。

딱다구리 얘 얘 까마귀야 저것 봐라! 저것!

까 마 귀 뭘 그래?

딱다구리 저기 토끼가 뛰여 가지 않니? 저것봐! 저기 말야。

까 마 귀 어디?

딱다구리 얘 어서 후려라! 어서! 저봐 가만이 서 있구나!

까 마 귀 으흐흐 가만있어 좀。

딱다구리 아니 왜 벌벌 떨구만 있니? 응? 어서 두 눈을……

까 마 귀 으흐흐…… 에그 저런! 숲속으로 달아나버

딱다구리 너 흰 소리만 쳤구나!

까 마 귀 래일은 꼭 잡아 줄게。

딱다구리 앙이 배고파라。

까 마 귀 그럼 오늘은 쥐새끼나 잡아 주마 쥐새끼두 참 맛 있단다。

딱다구리 얘 저봐라! 쥐! 쥐!

까 마 귀 오냐 고까짓 전 념려 없다。

딱다구리 옳지 쏜살같이 후리는구나! (큰소리로)까마귀야! 잡았니?

까 마 귀 아유! 아유! 얘야 내 눈 좀 봐다구。

딱다구리 아니 눈은 왜?

까 마 귀 쥐가 내 눈을 빡 할퀴구 달아 났어! 아유 눈이야!

리 운봉

△ 기부금

경주시 경찰서 감찰 계원 김 치규는 음식점을 하는 정 만식의 집으로 찾아 들어 갔다。

『우리 감찰계 주임네 집 수리 하는데 기부금을 좀 내야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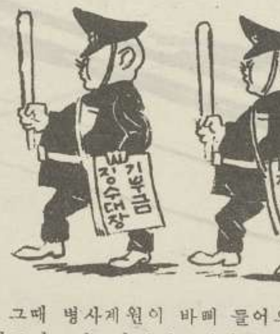
『보시다 싶이 밑천이 이렇게 적어서 이자 방금 김치감을 좀 사 오고 나니』

그러자 순경은

『영업을 앞으로도 할라면 내는게 좋을거요』

하고 뒤로 돌아선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남은 돈 천환을 털어주며 중얼거렸다。

『이 달까지 하구는 영업을 거더치워야지, 천푼을 벌면 열푼을 뺏아가니…』



그때 병사계원이 바삐 들어오다가 하마트면 김 순경과 이마를 맞찌을번했다

『령감! 우리 서장님께서 집의 도배를 하시겠다는데 기부를 좀 내야겠소』

『?? …?!』

주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해 서 있었다。

△ 공무원 감원의 막을 치고

부산 동아 고등 학교 교원으로 있다가「공무원 감원」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려 창남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돌아 다니다가 어째선지 한달로 못되여 또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총히 시청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문건을 뒤적이더니

『이제는 교원 자리가 없습니다』

『그전 제가 있던 동아 고등 학교에서는 채용한다던데요』

『그러나 선생 자리엔 벌써 딴 교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럼 국민학교에라도 보내 주십시오』

『아무데도 선생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요?』

『그건 선생의 친척 탓이지요』

『친척 탓이라구요? 내게는 팔촌형마저 죽구 이젠 친척이라군 하나도 없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 대표로 입후보한 선생의 팔촌형의 처남 김 용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창남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게 바로 그런 공무원 감원이였군요?』

△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인천。 영화관 매표구에서 표를 사가지고 나오는 한 청년이 표를 사려 가는 친구를 보고 말했다。

『에— 몸집보다 배가 더 크네』

『어느 사람이?』

『표 파는 사람 말이야』

그 청년은 호기심이 나 매표구로 돈을 들이밀고 매표원의 배를 드려다 보았다。 그러나 배가 크긴 커녕 깨깨 마른 사람이였다。 그때 안에서

『이백환을 더 내시오』

『나는 한장만 삽시다』

『여보 한장에 사백환이란 말이오! 사백환으로 오른걸 몰라요?』

『뭐 사백환이요?』

『입장세가 백팔십환하구 대통령 동상 건립비가 이십환 붙어서 그렇단 말이오』

『저런! 난 또 당신의 배가 몸집보다 큰줄 알았더니…』

△ 새들의 회의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남조선 각지로부터 모여 온 뭇 새들의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다。 왁새가 보고를 하였다。

『여러분, 지금 많은 우리 동무들이 매일 남조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는 벌써 60만 마리씩 떠나갔으며 만나기 드물던 골락새와 물까마귀 등은 벌써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인을 규명해야겠습니다』

처음에 딱다구리가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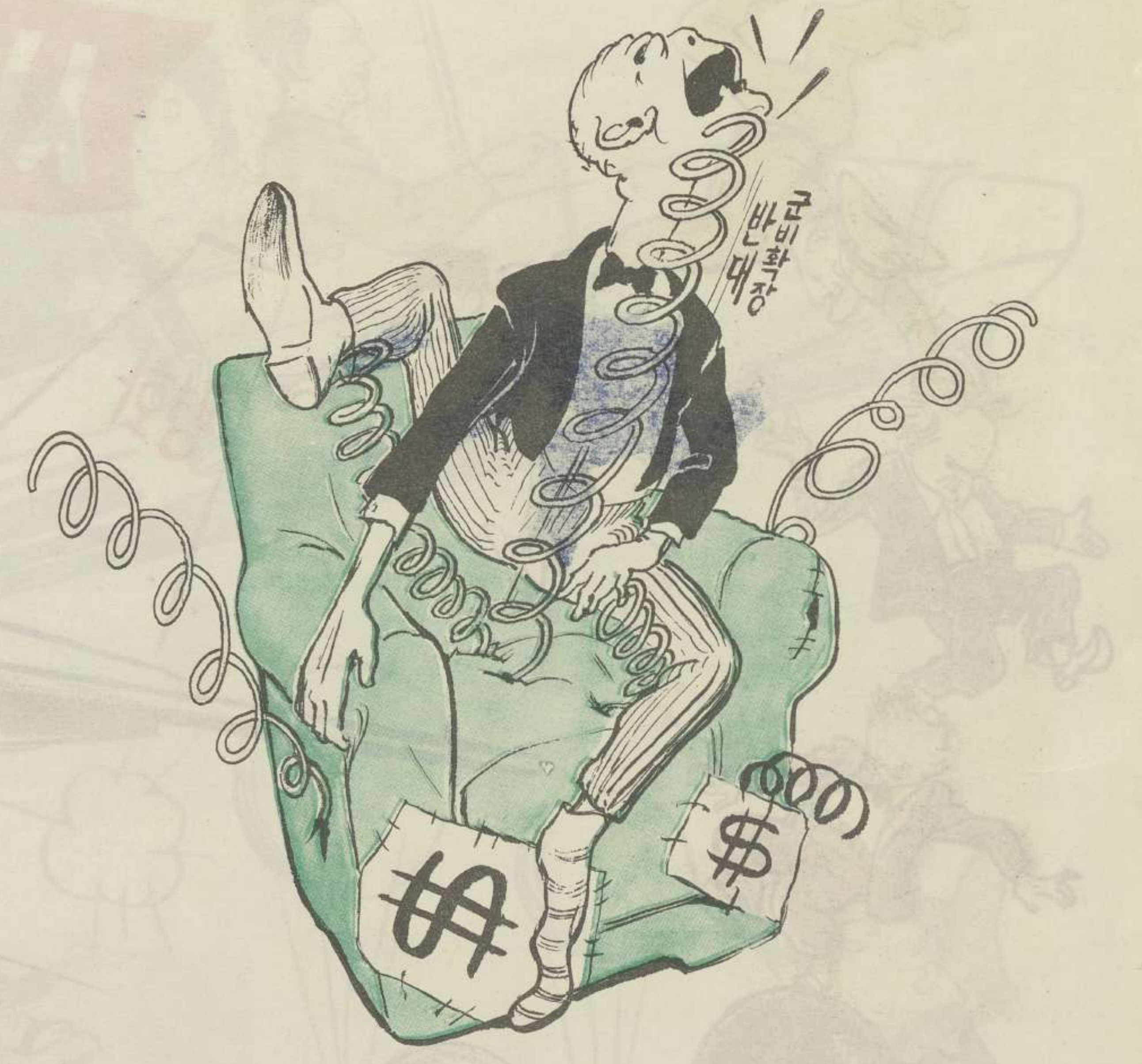
『우리 동무들이 자꾸 떠나가는 건 남조선 산들이 모두 황폐돼서 깃 들일 곳이 없기 때문이예요』

조류 보호 대책을 안하는 원인에 대해서 까치는 제비가 백성들에게 자유를 그렇게 해 준다구 하면서 리 승만이가 제비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때 참새가 말했다。

『아니예요 리 승만이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묻어 주지 않구 산에 갖다 내버릴텐데 그러면 까마귀가 자기를 뜯어 먹겠으니까 까마귀를 제일 미워한대요。 그래서 까마귀와 같은 종류인 새들은 모두 미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누를 수록 튕겨난다



리 승만—힘을 쓸 수록 더 아픈데 어찌된 셈이야! 홍종호 그림

사회주의10월혁명39주년만세!
평화
군사동맹
식민주의
군사협정
중상
허위
원조
「공산주의위협」
장개석
리승만
힘의정책
군비예산

박승히 그림

이것은 애급 인민의 정당한 답례다

장진광 그림

같은 밤에

유 할림

버밍검 시의 형사 재판소에서는 허드슨이라는 자의 범죄 사실을 심의하고 20년 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허드슨은 남의 집에 불을 질러 놓고는 화재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틈을 리용하여 재물을 훔치다가 체포되여 재판에 회부된 것이였다。

물적 증거들이 뚜렷하였고 증인들의 증언들도 움직일 수 없었다。 파렴치한 허드슨도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피고에게 물었다。

『한가지 있습니다』 허드슨이 대답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징역살이는 면치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존경하여 마지않는 안토니·이든 경과 한방에 있게 해 주십소』

『그게 무슨 말인가?』

재판장이 물었다。

『내가 지금도 존경하여 마지 않은 수상 안토니·이든 경이 이스라엘을 시켜 애급에 불을 질러 놓고 수에즈 운하를 훔치려고 한 일은 내 범죄 사실과 다를 바가 없으니 결국 나와 같은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애급에 있어서의 『마라리야 모기』의 운명

박승히 그림

송용남 그림

쏘련 "쁘라우다"지(1956. 11. 12)에서 전재
브. 파미췌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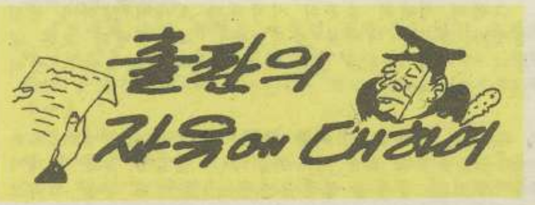
창피한 표'말 밑에

쏘련 "쁘라우다"지(1956. 11. 18.)에서 전재
꾸꾸리닉스 그림

이오제프 원사, 에스쩨하지백작, 호로찌:
— 일이 되지 않습니다

웽그리아에서의 자본주의 제도를 부활하기 위한 호르찌 파시스트들의 계획은 웽그리아 근로자들에 의하여 소탕되였다。

국제유모어 소개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최근 유·피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 밀폐쓰 도시에서 련방 조사국 국장은 미국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지방 경찰 장관들에게 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한사람의 기자도 입장을 용서하지 않은 그 사실은 강연 제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 준다。

필요한 전람품

"뉴쓰위크" 잡지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개관된 "인민 자본주의" 전람회 출품들 가운데는 한 시간에 16000개의 못을 생산하는 못 기계가 있다 한다。 기자 계층들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출판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람회는 록록이 실패를 당했기 때문에 다만 페관 할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어쨌든간에 못들은 전람품 포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빈민굴에서

거리로 장례 행렬이 지나 갔다。 집 문턱에 서 있던 소년은 아버지에게 물어 보았다。

——이 사람을 어데로 가져가나요?

아버지는 구슬으게 머리를 끄떡거렸다。

——내 아들아 그 사람은 식탁도 의자도 모전도 등불도 없는 곳으로 가져간단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 가져간단 말이군요?

소년은 이와같이 부르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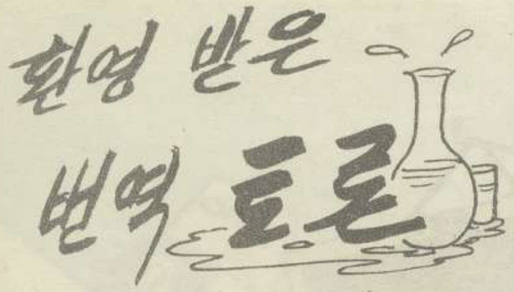
끄로꼬질에서

(한 동 신 번역)

중국 인민 일보에서 전재
우징 그림

자신이 저지른 결과

환영 받은 번역 토론



유 향림

리 민주 선전실에서 강연회가 열렸다. 뽕을 많이 심어 누에를 많이 쳐서 고치를 많이 생산하자 하는 내용이였다. 뽕을 기르고 누에를 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상세히 설명되였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였다.

그런데 뽕을 심을만한 곳이 많고 누에를 치기에 아주 적당한 이 마을인데도 강사의 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이상해 보였다.

처음은 한마디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우리기도 하고 공책을 펴 들고 받아 쓰기도 하던 사람들까지도 차츰 하품을 하고 쩐득쩐득 졸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이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받아 쓴 사람은 한 명 밖에 없었다.

강연을 끝내고 질문이 없느냐고 강사가 물었을 때도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 선전실장은 미안한 듯이 군에서 내려온 강사에게 변명했다.

『농사 일에 한참 바쁘니까 회의에 오면 모두 오늘같이 조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서 일어서면서 폐회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서며

『토론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강연을 끝까지 필기하던 그 단 하나의 열성적인 청년이였다. 그의 열성에 호감을 가졌던 강사는 곧

『좋습니다 토론하십쇼』

하고 언권을 주었다.

그런데 청년의 토론이 시작되자 오래지 않아서 선전실장과 강사는 이마를 찌프렸다. 그 청년의 토론 내용이 강사가 지금껏 말한 것을 그냥 되풀이하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던 농민들도 청년의 토론 내용이 강사의 토론 내용과 거의 같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강사나 선전실장과는 반대로 눈을 부비고 졸음을 쫓아내고는 곧처 앉아서 열심히 귀를 기우렸고 이따금씩 고개들을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청년의 토론 내용은 강사의 강연 내용에 비해 볼때 모자라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두 열심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된 비결은 뭐 별 것이 아니였다. 이 청년은 강사의 말을 약간씩 다른 말로 바꾸어 놓았던 것 밖에 별 다른 재주를 부린 것은 아니였다.

례를 들자면 『추기 식상의 최적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며……』 하는 말 대신에 『가을 뽕을 심는데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좋으며……』 라고 바꿔 놓았으며 『상근』이란 말 대신에 『뽕나무 뿌리』라고 했으며 『잠종을 소립한 후 며칠이 경과하면』 하는 대목을 『누에알을 깨운 후 며칠이 지나면』하고 고쳐서 말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조선말로 말했을 뿐이다.

강연회가 끝났을 때 청년은 강사에게 다음은 어디서 강연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강사는 다음 날 자기가 강연할 동네 이름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청년은 자원해 나섰다.

『강사 선생님! 그러시다면 거기 가선 애혀 처음부터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중년 농민이 말참견을 했다.

『잘 생각 했네, 기왕 통역을 하려 나선 바에는 방송국에도 가서 통역을 좀하게,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농업 강좌인가두 통역이나 해야 우리네 농민들이 알아 들을 것 들이 많습데……』

얼근한 평가

황종호 그림

조합원—우리 처가 오후엔 장에 갔다 오는데 그냥 한자루로 잡지…

작업반장—음… 서너홉씩은 돌아가겠지?…

박 령감의 이러한 현상은 없어야 할 일

닭—아저씨 선심을 좀 쓰세요!

박 령감—요놈의 닭 새끼 내가 어떻게 번 곡식이게

닭1—이제는 아저씨가 참 맘이 좋아졌어

닭2—그런데 조합에서는 왜 아저씨를 보고 건달'군이라고 할까?

원광수 그림

궁여 지책

김 문규

평양 곡산 공장이 조업을 시작해서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였다.

김책 공업 대학 열 설비 강좌의 어떤 젊은 과학자가 공장 관리 일'군들을 찾아 왔다. 과학자가 찾아온 사연은 간단히 다음과 같았다.

공장의 보이라실에서 로 장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석탄의 랑비가 많이 생기고 따라서 생산품의 원가가 높아지니 조속한 시일 내에 로를 고쳐야 한다는 그의 의견을 말 할려는 데 있었다.

방문객의 의견을 공장 관리 일'군들은 쓴 웃음으로 대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 공장에서 로 장치는 가장 선진적인 미분탄 장치요 이 설비는 해방전에 전 일본을 쳐고도 보기 드문 최신 설비였소』

과학자는 자기 의견을 다시 되씹어서 말했다.

『글세 최신식의 미분탄 장치이기 때문에 더 말썽이 있는 것이지요. 미분탄 장치가 제대로 되여 있지 않으니 석탄의 랑비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설비가 최신식이기 때문에 말썽이라? 그러면 구식일 수룩 좋단 말이요? 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소』

해방전에 가장 우수했다는 확신은 여기 일'군들의 고집을 땅고집으로 만들었다.

젊은 과학자는 찬찬히 자기 의견을 말하였다.

『우선 탄을 가는 미—루 장치가 조잡하구요, 또한 석탄가루를 황으로 부터 넣는데 수강식 설비가……』

『아이구 그만 두시요, 잘 알았습니다』주인 쪽에서 고함을 치는 바람에 방문객의 이야기는 자래목처럼 쑥 들어가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 공장은 경공업 공장이지 석탄 공장은 아니니깐요, 석탄이 랑비된댓자 얼마나 되겠소, 석탄쯤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옥수수요 옥수수』

평양 곡산 공장의 보이라 장치는 해방 되기전 그 모양 그대로 석탄을 먹어 들었다. 가끔 보이라실을 찾아드는 관리 일'군들은 온도계만을 들여다 보고는 만족해 했다.

『넣으시요 마구 넣으시요 석탄이 많이 들어가야 하오, 석탄은 우리 공장의 빵이니깐』하고 우쭐댔다.

공장 굴뚝은 기운차게 연기를 토했다. 방금 소나기가 쏟아 질듯 하는 여름 하늘의 검은 구름떼같은 시꺼먼 연기가 굴뚝이 메여지게 쏟아져 나왔다.

『자 보라구 얼마나 기운찬가!』

굴뚝을 쳐다 보면서 공장 관리 일'군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았다. 그 어느날 공업 대학의 과학자가 찾아왔던 일은 가맣게 잊어 버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였다. 두단리 벽지도리등 대동강 기슭 접야에는 오곡이 무르익었다. 어느날 부근 농촌에서 농민들이 찾아왔다.

『우리 논밭의 곡식들은 가을이 돼서 누렇게 아니라 모두 새까맣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무슨 방책이 없을가요. 촌집들에서 형편을 보면 불이 잘 필 때는 의례히 흰 연기가 나는 법인데 아무리해도 댁에서는 불이 잘 피는것 같지 않군요』

공장 관리 일'군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너털웃음을 웃었다.

『하 하하… 그것은 농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가야 물엿 포도탕 기름하여 좋은 식료품이 더 많이 농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거멓다고 해서 우리 공장이 원자재로 받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을테니 안심하고 그만 돌아가시요』

농민들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돌아갔다.

석달이 지났다. 분기말 바란스표가 나왔다. 원자재 옥수수 3만톤을 소비했는데 석탄은 2만톤을 소비했다.

땅고집쟁이 관리 일'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겨울철이 되면 옥수수 한톤에 석탄 한톤, 옥수수 한 이삭에 석탄 한 삽씩 들어갈 판이다. 이때에야 그 어느날 공업 대학의 젊은 과학자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전부터 공장 뒤'뜰에 내버린 재'데미에 동리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석탄재를 부지런히 날라가고 있은 일이 생각키웠다.

집채처럼 쌓아올린 재'데미에로 관리 일'군들이 우루루 모여 들었다. 재'데미는 석탄 그대로였다. 아궁이에 들어간 석탄의 45%밖에 타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 쌓여 있었다. 어떤 관리 일'군이 무릎을 탁 쳤다.

『참 좋은 수가 있소, 이 석탄재를 종업원들에게 배급합시다. 그것도 무상으로 해 줍시다. 그러면 일거 량득이 아니요』

어느 일'군이 맞장구를 쳤다.

『참 좋소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이웃 공장에도 나누어 주어서 폐물 리용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러면 일거량득이 삼득으로 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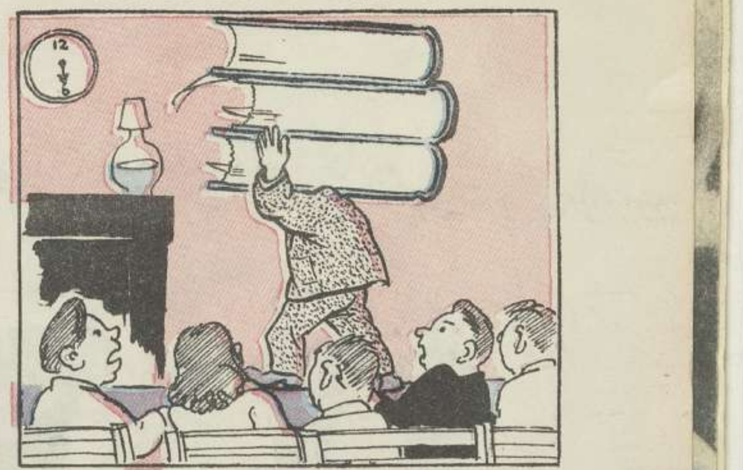
일거량득이나 삼득이 아니라 땅고집쟁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겨우 생각해 낸 궁여지책이다.

한증의 도가니는 아닐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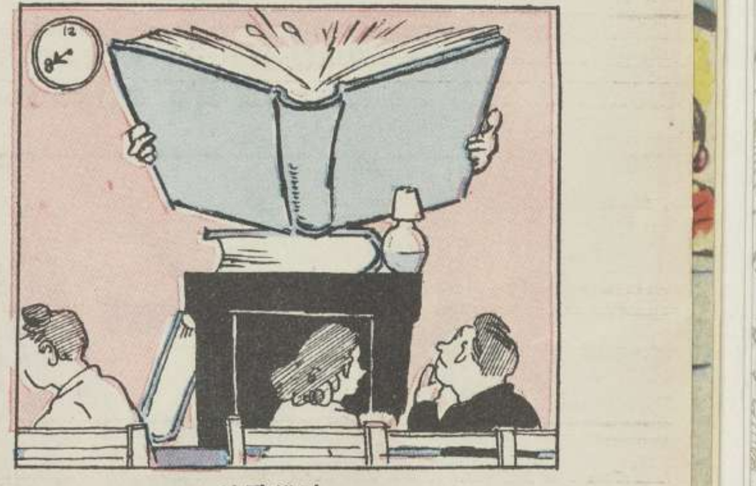
—에—덥 다 청량음료나 먹었으면…

최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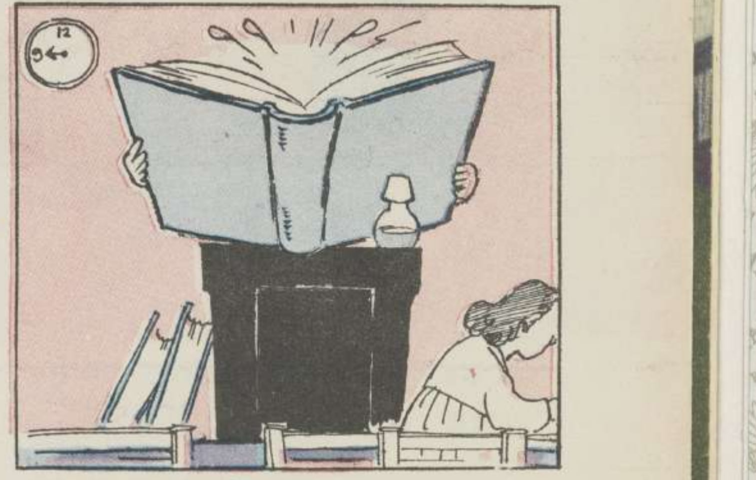
얼굴을 볼 수 없는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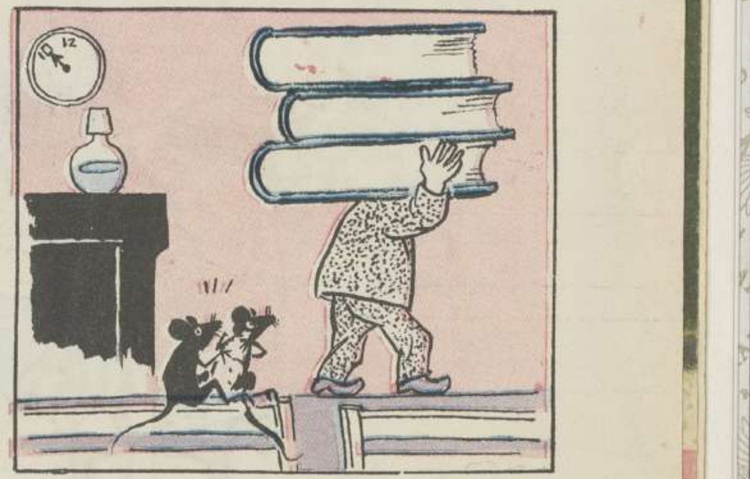
등단했다



시작했다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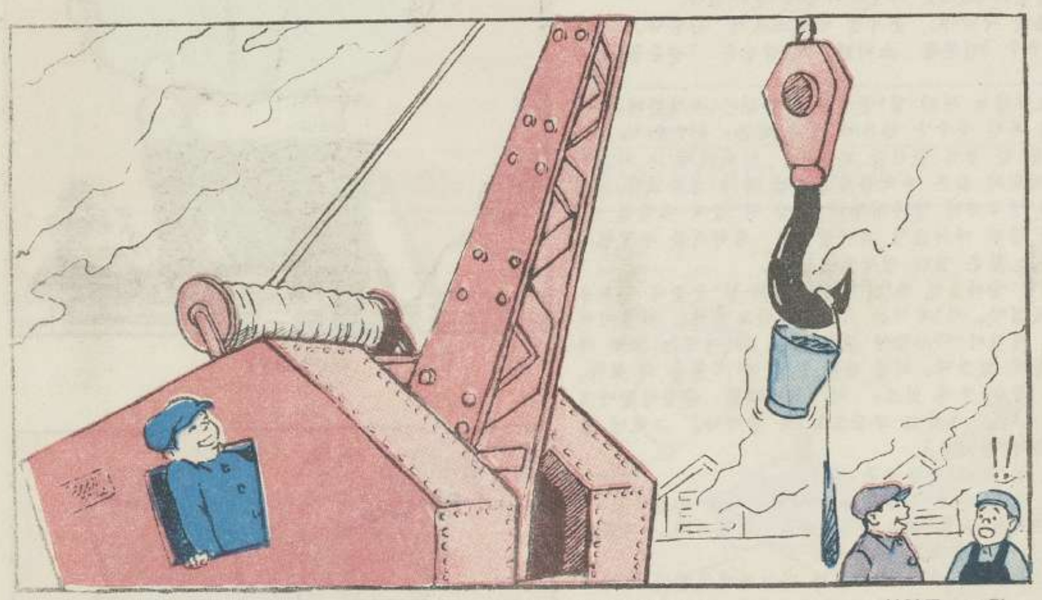


돌아 갔다

리영춘 그림

가끔 볼 수 있는 현상

——지배인 동무 모두들 힘들어 하는데 기중기를 동원합시다
——안되겠는데 지금 작업중이요… 좀 가볼까요



— 자 보다싶이 작업중이요
——……?

최영근 그림

"교조"

그전에 한 선비가 신발을 사려고 미리 자기 발의 치수를 재서 수첩에 적어 두었다。

어떤 날 그는 시장 신발 가게엘 가서 보니 발의 치수 재 둔 수첩을 안가지고 왔다。 그는 랑패나 당한듯이 쓴 입맛을 다시며 돌아서려니까 상점 주인이 왜 그려느냐고 사연을 물었다。

그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상점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 자신이 신을 신발이라면서 치수적은 것은 해뭘 하오?』

하면서 껄껄 웃었다。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배운 책에는 "차라리 자(尺)를 믿을지언정 자신을 믿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요』

거리의 여론

최영근 그림

눈은 있는데 망우리가 없다

안창수 그림

자유주의 잡기장

—— 여보! 당신은 눈이 없소?!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소

우선권 있는 미꾸라지

——내가 멋 있게 차지?
——야— 꼴!

—도로 포장용인가?

—밥이 다 식는데 왜
아직 안돌아 올까?

—대식가들이여! 그대들이 돌아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걸 아시는지

원광수 그림

록음실

수도·가에서

어느날 저녁 급히 집으로 돌아 오던 덕수 동무는 물고동을 잠그지 않아 제멋대로 물이 쏟아지고 있는 공동 수도'가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저런 아까운 물이 랑비되고 있군 물을 아낄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원 어더 누가 저 물을 잠그나 봐야겠군』

하고 생각한 덕수 동무는 수도 멀찌암치 서서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열 중

직맹 위원장이 물병 놓인 테불 앞으로 다가 섰다。

매일 보는 직맹 위원장이였건만 로동자들은 목을 길게 뽑고 테불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늘 회의가 긴가 짧은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들고 나온 종이 뭉치는 두툼하였다。

『아이구 오늘 회의는 또 길겠군!』

보고문 원고 부피를 보고 이렇게 중얼 거리며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직맹 위원장은 "마감으로 부탁"하고 "끝으로 강조"하고 또 "종합적으로" 그래선 "결론적으로"하고 또 결론의 서론이 강조되여 결론의 "결론"을 짓고도 또 긴 «연설» 이 계속 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연설에 열중한 직맹 위원장은 땀을 흘렸고 로동자들은 졸기에 열중하였다。

잘 알면서

승배네 집에도 직장에서 보내온 김장감들이 도착되였다。

『소 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집안이 어지럽기 전에 당장 손질을 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한 승배 어머니는 재빨리 배추를 다듬고는 시래기들을 오물장으로 나르기에 급히 서둘었다。

그가 시래기를 버리려 갔을 때는 벌써 어둑어둑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는 그저 되는대로 내깔렸다。

그가 마지막 버리고 집에 들어 섰을때 검병 반장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승배 어머니 오물들은 제자리에다 버려야지요?』

『그럼요 오물장에다 버려야지』

『잘 아시면서… 왜 이재 그 시래기들을 몽땅 오물장 밖에다 버렸어요?』

승배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장 필순

의혹의 풀림

국영 상점 앞에서 길수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화물 자동차에 산'데미 같이 싣고 온 겨울 내의를 부리우는 것을 보자 길수의 내의를 한 벌 사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리우는 내의를 만져보기까지 했다。

『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내리고 또 이렇게 질 좋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번 임금부터 인상되니까 우선 길수의 내의부터…』

그래서 임금 받기를 기다려 곧 국영 상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겨울 내의는 벌써 다 팔렸다 한다。

『자동차로 한 짐 가득히 싣고 온 걸 봤는데 벌써 그게 다 팔렸어요?』

『물품은 좋고 값은 눅다 보니 여간 잘 팔리지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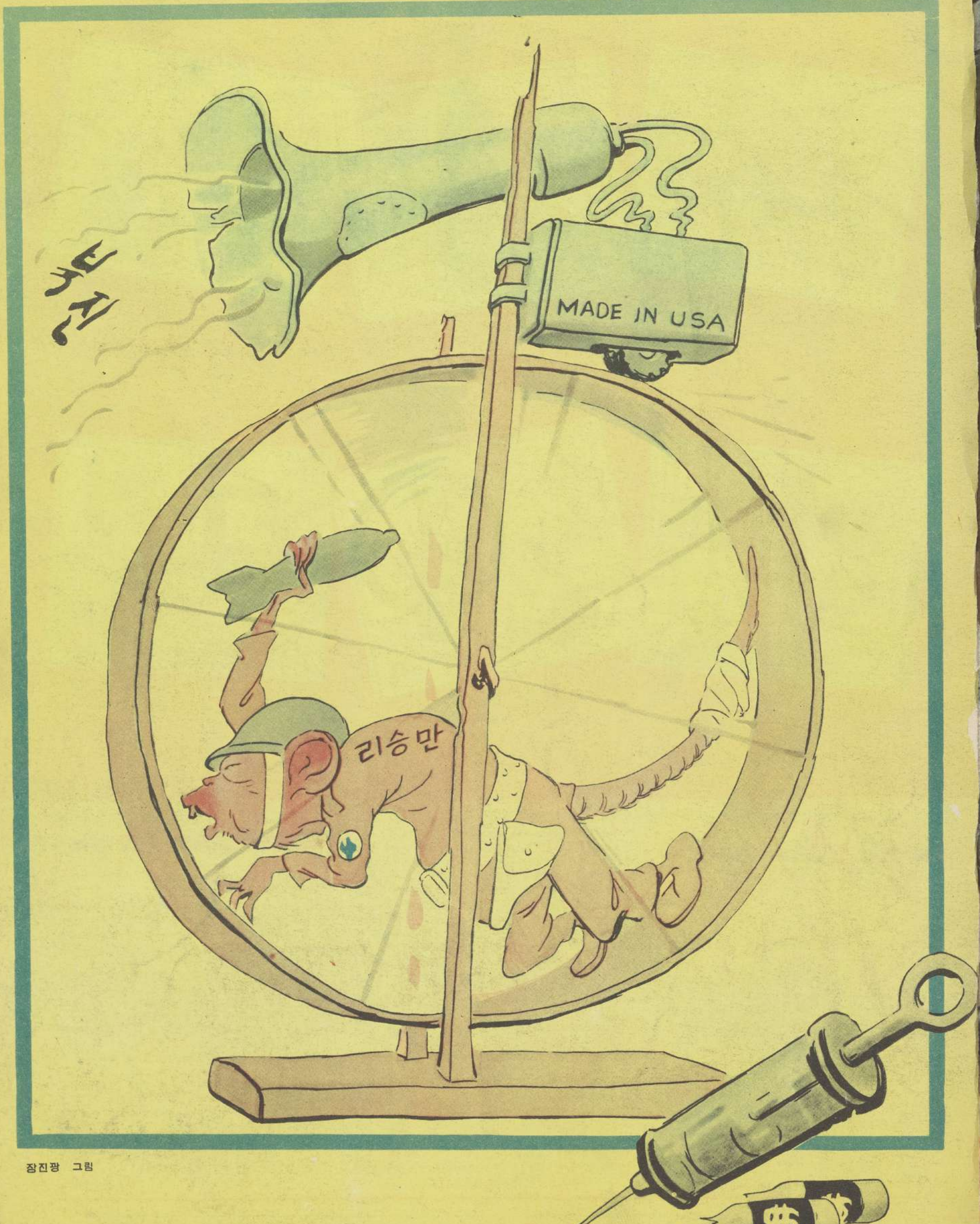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럴 듯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그 많은 물건이 죄 다 팔렸다는 것은 좀 이상스러운 일이라고 길수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이런 길수 어머니의 의혹은 그후 장마당에서 풀렸다。 국영 상점에서 행방 불명이 되였던 겨울 내의들은 장마당에서 비활개를 펴고 있었다。

김 순화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11. 10. ㄱ-70816
인쇄소 미술 인쇄 공장 발행 1956. 11. 15. (값 50 원)

딸라 주사 시간을 알리는 장치



장진광 그림